

“ 정의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 의 종으로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시행해 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정의를 몰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는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 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손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사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 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런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 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욥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 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읊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항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옷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62호] 2013년 4월 1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soon Jang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16-20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Calling”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p>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p>	<p>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p>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p>
--	----------------------------------------------------------------------------------------------------------------------------------------------------------------------------------------------------------------------------------------------------------------------------------------------------------------

“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

■ 빌 4:2-7

본문은 유오디아와 수두게가 서로 다투므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 부흥에 커다란 걸림돌을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평강의 순서
 성경에는 순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이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임을 말씀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의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의 흔들림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풍 앞에 서있는 자와 같게 됩니다.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단서를 구분하여 먼저는 “주 안에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 것은 2천 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마다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쁨이 넘치고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창조하거나 또는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라” 고 합니다. 참된 기쁨의 기원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조건의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를 향해 할 때도 있지만 담수호나 강을 ज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선원들이 상사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때에만 일관되고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삶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항상 기뻐하는 일관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항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감아 올라가며 생존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버림받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사실 앞에 우리는 꿈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외적 인 자서는 우리의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계우시니라” (빌 4:5). 관용은 온유함과 너그로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관용하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극복을 해야합니다. 영광과 평안이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길 원하는 것처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삼판 날이 다가올 것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처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이뢰 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자리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조광호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을 2:13 인 도 자
 찬 송 68(32) 다 함 께
 기 도 주영도 집사
 성 경 계 16: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일곱대접(네가지) 재앙" ... 설 교 자
 * 찬 송 447(44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주화인 권사
 성 경 엡 5:15-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 "높이 올라야 하는 교회"... 전재홍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화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운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릫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양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 장 례 1.故 김유봉 성도 (10교구 김미혜 집사의 부친, 한중호 집사의 장인) / 4월14일(토) 별세, 16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1명	282명	245명	1,408명	15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4/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15일	헌 금	23,033,200	
"	특별예배비		500,000
	찬양운영비		1,000,000
"	교회학교운영비		1,899,400
	비전2020		3,990,000
	출 판 비		270,000
	복리후생비		347,700
	교통통신비		2,103,159
	수도광열비		117,000
	차량유지비		250,000
	소모품비		346,000
	수선유지비		98,000
	환경유지비		242,000
"	식당운영비		552,000
	합 계	23,033,200	11,715,259